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5월 1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18(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5. 17. (화)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044-203-5690) 김재준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김종락 사무관(044-203-5693) 엄재영 서기관(044-203-4082)

산업부장관, 한일 우호경제협력관계 촉진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 하야시 경제산업대신과 '산업통상장관회의' 정례 개최합의-
-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 제시 -
-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대일 투자유치 8천만불 확보-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월 17일(화) 일본을 방문, (i) 하야시 모토오(林 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 (ii)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iii)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 定征)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團聯) 회장** 면담, (ⅳ)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한일 경제통상 협력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최근 한일 관계 경색 이후 감소추세인 교역·투자를 상승세로 전환 필요

: 최근 한일 교역현황(억 달러) : ('12)1,032→ ('13)947 → ('14)860 → ('15)715
일본의 한국투자액(억 달러) : ('12)45.4 → ('13)26.9 → ('14)24.9 → ('15)16.7

○ 작년 3년 반만에 정상회담('15.11월) 이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일본현지 활동을 통해 관계회복 전환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했다.

1 **(통상장관 면담)** 주 장관은 하야시 모토오(林 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그간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회의 계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번에 정례 개최를 합의

○ 양 장관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하여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 연1회 교대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1차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일본측도 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 양국간 경제협력의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에 규제·표준이 있는 경우는 서로 기준을 조화(harmonize)시키고, 기준이 없는 경우는 양국기업간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특히 양 장관은 작년 **한일 정상회의('15.11월)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합의사항(액화천연가스**(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관련, 세계 1,2위 액화천연가스(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액화천연가스(LNG)계약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도착지 제한(Destination Clause) : 계약서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하역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입국의 물량 교환(스왑) 및 재판매 등을 제한하는 조항

  * 의무인수(Take or Pay) : 계약서에 명기된 연간 계약 물량을 구매자가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구매자는 전체 계약물량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

- **제3국 공동 진출**은 해외 인프라·플랜트 분야에서 양국기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1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만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한국과 일본의 기업 및 수출 금융기관 협력을 보다 강화 필요

  * (사례1)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일본 미쓰비시 공동 지분 참여, 2030년까지 생산물량 245만톤

  * (사례2) 모로코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12억 달러, 350MW 2기) : 미쓰이물산, 대우건설(EPC시공) 공동 건설

-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과 한국이 세계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한 전자상거래시장이고, 작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로 했다.

  *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며,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 필요

  * 한일중 정상회의('15.11월)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민간차원에서도 3국의 온라인유통협회(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일본 통신판매협회, 중국 전자상무협회)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양 장관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이 한일중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지20(G20) 등 다자 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 **(한일 경제인 회의)** 주 장관은 300여명의 양국 대표경제인들이 모인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번영을 위한 **세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 양국 교역규모(억 달러) : ('65) 2.2 → ('15) 715 (국교정상화후 51년간 교역규모 300배 증가)

  * 한국 진출 일본 기업 : 3,009개사, 일본 진출 한국기업 : 727사(16년4월 기준)
    일본의 한국 투자 누적액: 397억 달러, 한국의 한국 투자누적액 : 70.2억 달러(15년 기준)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5.17(화)~18(수) / 동경 오쿠라호텔
- 참석자 : 한일 양국 경제계 대표 300여명
- 연혁 : 1969년 발족 이래 매해 개최
- 주최 : 한일 경제협회 및 일한 경제협회
- 금번 회의 주제: 한일 우호 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 인재,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새시대를 열어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에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6년 정세균 장관(아오모리현)에 이어 두 번째임.

  - 주장관의 참석은 1965년 한일간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이 지나 새로운 50년을 맞이하여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산업통상부장관의 참석을 요청, 이루어짐.

○ 첫째, 양국간에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한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이점, 높은 지재권 보호수준 및 사회기반시설, 최근의 노동·규제 개혁 등을 활용, 한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고, 한국도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정보기술(IT) 기반을 활용해 일본 대한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큼.

- 또한 검역, 인증, 표준 등 분야의 상호조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통한 교역확대도 추진 필요

○ 둘째,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경제통상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표준 등의 조화, 공동 연구개발(R&D) 및 국제기준 선도, 융합연계(Alliance) 등을 통해 협력하고,

- 한일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망 연결,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공동협력 등에서 협력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간 인프라·자원개발 등에서 성공사례가 많았던 한일 기업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콘텐츠 등으로도 확대하여 더 큰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셋째, **「한일간 협력」**을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이 협력하여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

- 한일중 3국은 GDP 2위·3위·11위이나, 역내 교역규모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에서의 한일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이 선도하는 것이 필요

3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 定征) 일본 경단련 회장과 면담**에서, 사카키바라 회장은 한국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감사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 주장관은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고 있어,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최근 개최한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16.5.11, 서울)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본인이 직접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한일 간 정치외교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최근 어렵게 형성된 한일관계 개선 전환국면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단련을 비롯한 일본경제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4 주 장관은 도레이·스미토모·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한국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등 제3국 수출, 한국과 일본기업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간 **유망한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 **첨단기술을 활용**한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이번 투자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3개 일본기업**은 **8천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 A사(자동차 부품) 약 4,000만 달러, B사(디스플레이부품) 약 3,000만 달러, C사(2차전지 분리막) 약 1,000만 달러 등

첨부 : 한일경제인회의 산업부 장관 기조연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조수정 과장(☎ 044-203-5690), 김종락 사무관(☎ 044-203-5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

2016. 5. 17(화)

산업통상자원부

《애도 표시 및 인사 말씀》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경단련회장님,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님,
호시노 츠요시 경산성 대신정무관님,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먼저 최근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과 피해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일본정부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
향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테마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 곳 동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 협력 성과 평가》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일 양국간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98년 "한일 파트너쉽 구축" 이래 한일간 문화 개방을 통해
한류드라마와 일본애니메이션 등 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인적 교류도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연 1만명에서
2015년 584만명으로 5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국교정상화 당시 2.2억달러에서
오늘날 700억달러로 300배이상 증가하여
서로에게 세번째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였고,

* 양국 교역규모(억불) : ('65) 2.2 → ('15) 715 (국교정상화후 51년간 교역규모 300배증가)

투자와 관련, 3천개가 넘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400억불 정도를 투자하여
한국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 한국 진출 일본 기업 : 3,009개사, 일본 진출 한국기업 :727사 (16년4월기준)
  일본의 對韓 투자 누적액: 397억불, 한국의 對日 투자누적액 :70.2억불(15년기준)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소중한 동반자적 역사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50년 간
한일 경제통상협력이 더 번영하기 위해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일 경제통상협력 방향》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성장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호 투자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2012년 이후 일본의 對韓투자가 1/3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역액도 3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일 교역현황(억불) : ('12)1,032 → ('13)947 → ('14)860 → ('15)715
  일본의 對韓투자액(억불, 신고) : ('12)45.4 → ('13)26.9 → ('14)24.9 → ('15)16.7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영향 등으로
한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는 면도 있지만,
양국이 더 노력하면 이를 좀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3년반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먼저 양국간 서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투자기업간 교역증가로 이어져,
투자와 교역 추세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對韓 투자) 먼저,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작년말 발효한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대중 시장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 틀로서
한중 FTA 이행위원회, 기술장벽·검역 장관급 협의체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중 FTA 후속 서비스·투자협상이 연내 개시되어
서비스 투자 분야의 대중 진출에 있어
향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지적재산권 제도 및 투자자 보호제도와 함께
전력·통신·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애로사항인 노동·규제 분야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규제분야에 있어서도
신산업 분야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며,
규제를 푸는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단 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GDP 75.1%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FTA 효과를 누리면서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에 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 도레이社가 한국의 새만금 산업단지에
고분자 첨단소재 공장을 준공하고,
스미토모社는 여수에 고흡수성 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 등 세계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對日투자) 또한 한국 기업 역시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참여한 TPP가 발효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일본투자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일본의 발달된 인터넷 기반과,
1억2천700만에 이르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IT 분야의 진출도 유망합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한국 기업의 대일 투자가 활발해져,
NHN의 LINE과 같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진출 성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역의 확대) 아울러 상호투자를 통한 교역 활성화 뿐만아니라,
교역 자체의 확대를 위해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필요합니다.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은 표준과 인증·규제의 조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의 시험성적서 인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신산업의 경우 국제 기준 제정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를 주도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리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투자 분야 확대) 더불어 투자 분야를 보다 다각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조업·부품소재 분야 위주에서,
소비재·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는
문화컨텐츠, 교육, 금융, 의료, 관광 서비스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상호 투자와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한일 양국은 서로의 강점과 비교 우위를 살려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양국의 경제협력분야도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산업)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모두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육성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규제프리존 도입 경험 등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국제 기준 설립에 있어서도 공조를 확대한다면,
첨단기술 도입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기업들이 신산업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 R&D, 설비투자, 인력양성을
같이 한다면 더 큰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스마트카,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과 업종이 융합되는 특성상
기업 혼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異種 기업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신산업분야에서 성장기회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게
융합 alliance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일본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한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간
에너지협력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양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나아가 러시아를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전력망의 연계사업,
석유와 천연가스 역내거래 활성화와 해저 파이프라인 연결,
LNG 스왑과 LNG 수입시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개선
공동노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도 한일간 중요 협력 분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한 전자상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통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보다 노력한다면
규모를 더 키울수 있습니다.

작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는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협력을 보다 확대하여
한일은 물론 동북아 디지털 싱글마켓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해서,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국 공동진출) 또한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해야 합니다.

이미 인프라·플랜트 건설,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 상사의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대우건설과 미쓰이 물산의 모로코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 등
한일 양국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3국에 진출한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플랜트 규모가 점점 초대형화됨에 따라
1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만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프로젝트 발굴 능력 및 자금조달력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 및 시공능력을 결합하고,
ADB, AIIB, W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다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3국 공동 진출 분야를
스마트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유통망을 구축하기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
양국 기업이 함께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IT 기반 의료정보시스템과
일본의 세계적인 의료장비 기업이 협력한다면
경쟁력 있는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일 양국간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한일 양국, 나아가 한일중 3국의 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2위, 3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3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협력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틀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중 3국은 EU,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비중은 EU, NAFTA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세계가 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일중 FTA는 아직 협상중입니다.

3국 기업인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대 단일 통합시장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는 언젠가는 꼭 이뤄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투자 확대를 통해
이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 중국이 함께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 느슨하나마 우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일중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2천년 동안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지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옛 조선통신사는 한국과 일본을
두개의 아름다운 옥구슬(경요: 瓊瑤)" 에 비유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 또 서로 빛을 반사해 비추면서
온 세상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두 개의 구슬처럼 세상을 밝히라는
조선통신사의 바람처럼,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 도와
양국의 새 우호관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상호 우의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오 고자이마스!